

청년zip중 - '나의 관계' 이야기 공모 당선작(일부)

세부주제	타인에게 영향을 주었던 경험
제목	용기 있는 선택
소녀는 역무원이 건넨 물을 마시며 점차 안정을 취했다. 역무원 중 누군가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안정을 찾은 아이도 그제야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전철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을 한 후 나는 다시 문산행 열차에 올랐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일까? 안심이 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실은 여학생에게 다가가기 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고민을 했다. ‘오늘 할 일이 있는데 시간 낭비는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다행히 사진관 예약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나섰기에 여학생을 도와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촉박했다라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지나쳤을지도...당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밍게도 보였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중요한 약속이나 급한 일로 바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도움을 주어야 할지 말지 고민하던 나처럼 분명 그들도 속으로 백 번 천 번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단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있던 내가 도울 수 있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아니었다더라도 누군가는 그 여학생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된다. 먼 훗날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망설이다가 후회하기보다는, 용기 있게 선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세부주제	타인에게 영향을 주었던 경험
제목	타인의 온도
나는 또 다른 겨울 해에 서있었다. 집 앞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담배연기가 얼굴을 덮었다. 중학생처럼 보이는 한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난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스쳐 지나갔다. ‘내 일 아니야’ 하지만 그때 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간 무모한 남자가 되어 아이에게 성큼 다가갔다. “담배 당장 꺼” “몇 살이니” “너 집 어디야” 그렇게 나는 밀어붙였고 아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이와 마구잡이 대화를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며 아이의 집은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 근처 주택가에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아이의 집으로 동행하고 있었다. 미로 같은 좁은 골목을 지나 철조망 같은 잡초 덩굴이 감고 있는 빨간 벽돌집에는 퀴퀴한 냄새와 부서진 과자 조각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사람 사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때 오래된 텔레비전 앞에 검은색 형체가 눈에 보였다. 아이는 자신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엄마는 엎드린 채 대답이 없었고 조용히 인사한 후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아이와 함께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떡볶이 그릇이 비워질 때쯤 나는 아이에게 나의 온도를 보여주며 우리의 온도에 관해서 얘기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가끔 만나서 밥을 먹으며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낌없는 도움도 주곤 했다. 비록 아이의 성적은 고등학생 진학 후에도 바닥을 맴돌았지만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다.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고자 용기를 내었을 때 아이의 온도는 냉탕이었을 것이다. 바르르 떨고 있었을 것이다. 난 뜨거웠고 아이는 차가웠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온도를 공유하였고 온탕처럼 안정감을 찾아갔다.	

세부주제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경험
제목	나의 70대 친구

“제가 젊을 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가을에 지역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몇 년 전에는 서울에서 외국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도 했었어요. ”

“와 진짜요? 저 서울 갔을 때 뵈었던 거 같은데. 그런 거 영어 진짜 잘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대부분 매일 같은 걸 물어보니까, 적당히만 하면 돼. 어려운 건 없어요. 웃긴 거 말해줄까요. 제가 정말 젊을 때 땀뻑 영어 점수표가 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계속 그냥 복사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뽐아주더라고. 그리고 내가 또 젊을 때 사진관도 하고, 큰 상도 받은 적 있거든. 그 증명서를 내니까 나를 또 뽐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젊을 때 했던 일이 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말을 듣고 나니, 예전에 할아버지가 왜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에 크게 웃으시면서 공감하셨는지 한방에 이해가 갔다. 그리고 내게 공모전에 도전해 보라고 하신 그 의도도. 늦여름에 기초반에서 만나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던 가을, 심화반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나지 못했다. 나는 그 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를 이야기하며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나의 바람. 언젠가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고민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하고 싶은 일 참지 않고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고 싶게 만들어 준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오래도록 내 친구를 잊지 못할 것이다. 나의 70대 친구인 그를.

세부주제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경험
제목	대단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사람을 사랑할 명목으로 간호사라는 직종을 택했으나, 배운 지식 속에 나를 가두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잊을 뻔했다.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진심”이다. 라포 형성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진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말이다. 멋대로 만든 규칙 속에서 조현병 환자라는 것만으로 그를 의심하고 함부로 안타까워하기까지 했다. 그 내면에 깃든 그의 진심은 봐주지 못하고 말이다. 결국 그의 진심을 안 것도 그가 먼저 건넨 초콜릿 덕이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함부로 약자로 정의하고 무조건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이런 속내로 대했음에도 오히려 그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다. 외적인 기준이 자꾸만 시선을 끄는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은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치 세상을 위해 뭐든 할 것 같이 굴던 나처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각했던 나처럼. 나는 앞으로 더욱 내면의 진심을 보는 것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A씨가 내게 보여준 진심과 같은 순수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 고민하며 나만의 진실함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가 바보로 여기거나, 약자로 생각하거나,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사랑과 진심은 훨씬 커다랄지 모른다. 세상에는 앙상해진 나뭇가지를 보면 봄을 기다리며 웃는 B씨도 있다. 양념치킨 냄새를 맡으면 새벽의 월드컵 경기를 떠올리며 바쁘게 치킨을 튀기는 사장 C씨도 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듯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람들과의 진심을 주고받으며 찾는 그들만의 행복. 청년의 경험에서 비롯된 관계에 대한 고민은 결국 비슷하게도 “행복”으로 수렴했다. A씨는 내 가슴에 본질을 진심이라는 뜻을 사용해 박아 넣었다. 내 시간의 결과물이 뻔하대도 좋다. 똑같아 보여도 좋다. 똑같기에 좋은 것이니.

세부주제	관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경험
제목	손을 펼치면 울타리가 된다
일을 하면서 나는 조금씩 나의 뿌리를 단단하게 키웠다. 생각보다 어른은 따뜻하고 배추의 겉잎처럼 건조하지만 든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처럼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이는 벌써 어른이지만, 아직 내가 보았던 어른의 반도 자라지 못했었으니 말이다. 사회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른은 그렇게 모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배추를 나르며 알게 되었다. 흰 신발이 푸르게 물들고 장갑이 서서히 젖듯 처음부터 단단한 사람 없고, 모난 어른은 없다는 것도 말이다. 무를 갈며 첫눈을 보았다. 흰 무가 무채가 되어갔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옆에 앉은 사람들은 이름으로 불렀다. 어깨에 손이 닿듯 눈이 내리고 봉지에 옥여넣은 배추가 봉지를 찢지 않기를 바란 시간이 있어 나는 꽤나 질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적어도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흉내 내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착각하여 분에 맞지 않는 환대를 시도해보고도 싶었다. 멀지 않은 과거에 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을 하고 다녔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감이라도 알 것 같다. 나는 감을 잡는데 오래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한번 잡은 감은 내가 놓지 않는다. 이 감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밝히고 싶다. 나의 긴 생명선을 활짝 펼쳐 주변에 혼자 있는 손을 잡는 울타리가 되고 싶다. 두 눈으로 목격한 환대가 있어 어찌면 나는 혼자 사는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른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배추를 전달하듯 손에 힘을 주며 살아가고 싶다. 손이 다 젖을 정도로 다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세부주제	관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경험
제목	새내기 공직자, 관계의 필요성을 느낀다!
고시원에서의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공무원 합격의 꿈을 꾸던 2년을 넘어, 드디어 2021년 1월 1일자로 모지자체 행정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모든 것을 지침과 법령대로 처리하리라 마음먹으며 임용장과 공무원증을 품속에 안고 공직자로서 첫 발을 디뎠었다. 첫 발령지는 모 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숨 가쁘게 선배 공직자분들에게 인사를 꾸벅 하고 자리에 앉으니, 처음 보는 새울 행정정보시스템 로그인 화면과 깜빡거리는 공직자 전용 메신저가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신규자인 것은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재고의 여지도 없는 듯, 그들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신청 서류와 모 지역 유지의 친인척이라며 우악스럽게 다가왔다. 내가 전공한 법학에선 이럴 수 없는데, 내 눈 앞에 꽃아져있는 지침에선 이런 사례는 없는데 합격의 기쁨은 발령 전 3달이 전부였고, 타지의 자취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는 나날이 지속되었다. 동기들은 술자리며 티타임을 갖지며 메신저를 보내왔지만,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지침은 민원인들에게 몇 장의 종이일 뿐일까? 왜 그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시쳇말로 공무원이 다칠게 뻔한 일도 그저 해달라며 협박 섞인 말들을 해올까? 선배들의 타이름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부모님의 걱정 어린 조언도 그저 귓가에만 맴돌 뿐이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고, 사수였던 모 주사님의 협박 어린 저녁식사가 내 달력에 쓰여 졌다.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터덜터덜 약속된 자리에 나가니, 군청 소속 까마득한 선배님들도 배석해 계셨다. 속으로는 '사수님 하나로도 벅찬데, 저렇게 고위 공무원까지 모시고 오다니... 내겐 일언반구도 없이...'라며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막내로서 물을 따라드리고, 휴지를 깔고 수저와 젓가락을 배치할 때도 그들은 빙긋이 웃으며 나를 보고 계셨다. 예약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나오고, 그제서야 선배님들은 운을 떼셨다. "고생이 많지?" 늘 듣던 말인데, 왜 눈물이 나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나는 눈물을 쏟고 말았다.	

세부주제	관계에 회의감을 느꼈던 경험
제목	청년이 화장실에 가지 못 하는 이유
오줌이 너무 마렵다. 이에 커다란 고춧가루가 끼어있지는 않을지 신경 쓰인다. 화장실에 가서 이 근질거림을 얼른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화장실이 수세식이어서, 화장실의 줄이 길어서가 아니다. 청년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SNS에서 본 것. 남들에게 들은 것. 그들에 대한 칭찬과 근황, 그리고 폼하까지 모든 것이 난무한다. 청년들은 이야기가 아닌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들은 평가가 아닌 험담을 하고 있었다. A에 대한 외모, 성격, 학력, 집안, 재산까지 재잘재잘 이야기를 나눈다. A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동료 청년의 공감과 인정을 받는다. 유대감은 덤이다. 험담으로 한 순간에 A는 그르친 사람이 되었다. A와 상반되게 나는 좋은 청년이 되었다. 나는 A 같은 사람이 아니게 되므로. 나는 그러한 A의 유해함과 반대되는 청년이므로. 점점 험담의 매력을 느낀다. ‘험담은 남에게는 유해할지 모르겠으나(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에게는 무해한 것이구나.’ 그렇게 나는, 그리고 청년들은 험담에 의존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관계는 나를 지치고 허탈하게, 웅졸하고 구차하게 만드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미 이 관계에 젖어 들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도 그들의 험담에 동조한다. 내가 선봉장이 되기도 한다. 험담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가 해롭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제지하고 반론할 수 없다. 다수를 상대로 도드라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것마저 나에 대한 험담 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험담 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무의미한 것이 되므로. 그렇게 나는, 그리고 청년들은 험담에 중독되었다.	

세부주제	관계에 회의감을 느꼈던 경험
제목	‘선물하기’
그때 내 머릿속에 지나간 나의 생일이 떠오른다. ‘애는 나한테 뭐 해줬나? 아, 아무것도 안줬네, 그냥 축하만 해줘야지.’ 기분이 묘하다. 옛날에 생일을 알려주는 기능이 없었을 때는 그저 순수하게 축하해주지 못한 미안함, 내 생일을 잊었다는 서운함이 가장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멀리서라도 선물 비슷한 걸 간단하게 줄 수 있게 되자, 서로간의 관계가 생일에는 조공과 하사의 관계로 변질된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생일이라는 것을 진실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것이 아닌, 그저 ‘내 생일날 받은 만큼, 너의 생일날 돌려줄게.’라는 인식이 내 마음과 머릿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그런 인식으로 인하여, 단지 그 하나의 작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뿐인데, 나와 우리의 관계는 은근하게 서운한 평가가 반영된 연락을 하게 되니, 이 얼마나 회의감이 드는 관계인가.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대화 메신저 등이 아닌 전화로 직접 축하해 주는 빈도가 늘었다. 돈을 굳힌다는 알팍한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적어도 가족을 제외한 대다수가 메신저로 축하할 때, 그들의 생일날 전화기록부와 청각적 기억에는 내 이름과 목소리가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부주제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었던 경험
제목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작은도서관이 어느 정도 쓸만한 공간으로 바뀌었을 때, 청년들이 관심있어 할 주제로 강의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점차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나는 퇴근 이후에 습관적으로 도서관을 찾고, 만나는 이웃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위해 도서관 한 켠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밥’이었다. 최근 어느 뉴스를 통해 혼자서 밥을 자주 먹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빠르게 노화가 든다는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다. 그만큼 1인가구가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 중 가장 많은 순간이 혼자 식사를 할 때이고, ‘먹방’이 유행하게 된 것도 혼자 밥을 먹을 때 같이 먹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여하튼, 이웃 간에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공간에서 서로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정말 ‘식구(食口)’가 늘어났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지금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기간이 만료되어 각기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인연을 유지하여 오랜 관계를 지켜나가고 있으며 그곳에서 살던 기억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한 목소리로 부를 정도로 외로움을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채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작은 공동체의 시작은 포스터 한 장이었고, 그 포스터는 누군가의 노력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이처럼 이웃, 친구, 동료 등 다양한 관계를 시작하고 이어가는 데는 누군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누군가’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연결고리가 없어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나이 막바지를 살고있는 요즘, 최근 청년들 간에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비혼을 선언하는 청년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청년들의 마음에 자리잡은 ‘개인주의’가 진짜라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으나 대부분의 ‘개인주의’는 이면에 있는 외로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 적은 노래가사처럼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우리 안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세부주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경험
-------------	------------------------

제목	악연이 인연에게.
-----------	-----------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우리 가족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다. 낯선 동네, 낯선 지리, 낯선 사람들, 처음 겪는 아파트 생활. 낯설었던 모든 것들이 가족을 더 결합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분명 가족의 관계는 한 보 진전했지만, 나와 나의 관계는 어쩌선지 더 나빠졌다.

그즈음 나는 한창 우울증이 심해 병원을 다니던 시기였다. 하루는 우울함을 견디지 못해 방에서 자살 시도를 하던 중이었다. 마침 엄마가 방에 들어왔다. 엄마가 굳었다. 믿기지 않는 듯이 바라보다 나갔다. 나는 순간 목에서 줄을 끊어 내려왔고 엄마를 찾아갔다. 충격을 받은 엄마는 내게 말했다.

“네가 죽으면, 엄마는 무너져. 모든 게 견딜 수 없어.”

울먹이는 엄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그날 나는 엄마와 처음으로 그동안의 쌓아 온 모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증오만 남을 거라던 믿음이 깨졌다. 엄마는 이제 나를 믿고, 나는 그런 엄마를 믿었다.

처음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듣던 날이 생각난다. 어린 엄마의 발에 가시줄을 채워 개처럼 묶어둔 엄마의 할머니. 그 흥터는 신이 넘은 엄마의 발목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홉 살에 암투병하던 할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던 아이. 세 명의 남동생들과 고모가 떠넘기듯 맡겼던 사촌 동생들까지. 학교도 못 가며 많은 동생을 키워야 했던 우리 엄마.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평생 처음 들었다. 애초에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해준 적 없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슬프지도 않게 말하는 엄마의 모습이 더 슬펐다. 자살하려 했던 딸의 모습을 봤을 때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을까? 그게 무엇이든 확실했다. 엄마의 가족으로서, 딸로서, 두 번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지금의 나는 건강히 지내고 있다. 스스로 독립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엄마를 보러 간다. 때때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 때면, 엄마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자살 시도를 했던 날, 엄마가 흘린 눈물도 함께.

한때는 엄마가 지독히도 미웠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애증만 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했다. 나의 엄마는 미운 자식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애증이 아닌, 애뜻함만이 남아 서로를 사랑으로 감싼다. 이것이 인연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나는 이 관계를 아주 사랑한다. 지독히도.